

에세이 제목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준 행정법총론
제출학과 학생	행정학부
<p>군대에서 전역하고 첫 학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대학생이 되었다는 생각에 기대를 정말 많이 했다. 1학년 때는 못 했던 대외활동도 많이 해보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서 अच्छ고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무엇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1학년 때 소홀히 했던 학점을 잘 관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시간표를 짤 때부터 굉장히 신중했다. 내가 정말 궁금하고 배우고 싶은 과목들로만 시간표를 짰다. 특히 행정법총론은 무척 듣고 싶었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할 때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난다.</p> <p>다른 과목보다도 행정법총론을 무척 듣고 싶었던 이유는, 군대에서 만난 후임 때문이다. 후임이지만 나이는 나보다 훨씬 많은 분이었는데,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입대를 하신 분이였다. 그 분은 군대에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틈만 나면 책을 펴고 공부를 하셨다. 나는 그 어렵다는 법 공부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서 기웃거렸다. 한 번은 그 분이 자신이 공부하던 책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생소한 법률 용어들과 어려운 문장들로 밀줄이 가득했다. 이렇게 어려운 걸 전부 외워야 하나고 물었더니 그 분은 웃으면서 ‘원리를 이해하면 쉽다’라고 하셨다. 그 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막연하게 ‘법’이란 무엇인지, ‘원리를 이해하는 법 공부’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p> <p>매일같이 꿈꾸던 전역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매일같이 바라던 복학을 앞에 두어 수강 신청을 하려고 보니 행정법총론이라는 과목이 눈에 띄었다. 원래는 다른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문득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하시던 후임이 생각났다. 군대에서 법 공부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때도 기억이 난다. 그 기억과 함께 법 공부에 대한 궁금증이 다시 피어 올랐고, 지체하지 않고 행정법총론을 수강 신청했다. 사실 수강 신청하고 나서 친구들로부터 행정법총론은 철회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다. 행정법총론은 3학년 전공 과목인데다가, 국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는 과목이라서 좋은 학점을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런 조언들보다 내 궁금증이 더 컸다. 어찌 보면 무모했을 수도 있는 수강 신청이었고, 한 학기 동안 내 선택은 무모한 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공부했다.</p> <p>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정법총론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완화된 상대평가가 적용되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내심 기대했지만, 그만큼 소홀히 공부했던 것 같다. 핑계를 하나 더 말하자면, 군대에서 전역하자마자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니깐 공부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번 학기에 행정법총론을 수강했다는 걸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강의 내용 중에서 얻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받은 낮은 점수는 내 공부법에 대해 한 번 더 성찰하는 소중한 계기가</p>	

되었다.

사실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은 강의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 게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강의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질문이나 토론은 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교수님의 강의는 법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는 내가 듣기에도 굉장히 수월했다. 교수님께서 생소한 행정법 개념과 판례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해주셨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은 마치 이야기 듣듯이 재밌게 빠져들어서 들었다. 특히 음식점 영업 허가에 대한 절차를 설명해주실 때는,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음식점을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이해가 무척 잘 됐다.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눈에 띄는 정도였다. 교수님께서서는 행정법뿐만 아니라 헌법, 민법, 형법 등 다른 법률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 비교도 자주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보충 자료로 해외의 법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비록 보충 자료가 시험 범위는 아니었지만, 보충 자료를 함께 공부하면서 내 법률 지식이 크게 확장되는 느낌이었다. 시험공부 할 때는 교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주셨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 시험 기간에 행정법을 공부하려고 보니까 내용이 생각보다 넓고 깊어서 당황했는데,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니 어려워 보였던 행정법이 손에 잡혔다.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해서 답답한 점이 많았다. 우선, 교수님의 판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다. 교수님께서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수업 동영상을 찍는 데에 익숙하지 않으셨던지, 처음에는 판서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았다. 강의하시면서 펜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 교수님께서 마우스를 이용해 판서하셨다. 하지만 마우스를 이용한 판서에 익숙하지 않으셨던지, 판서는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였다. 만약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교수님께서 칠판에 글씨를 쓰셨을 것이고, 판서가 무슨 내용인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온라인 수업이라서 어쩔 수 없는 한계였지만, 깔끔하지 않은 판서는 정말 아쉬웠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혼자 듣다 보니 어려운 내용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을 학우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공부할 수 없다는 점은 정말 아쉬웠다. 이건 다른 온라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점인데, 나는 오프라인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학우들에게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면서 수업 내용을 정리하곤 했다. 혹시 그 학우도 내가 물어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교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수업 내용을 정리했고, 그러면서 다른 학우들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되어서 이런 과정은 생략될 수 밖에 없었고, 나는 어려운 내용을 마주할 때마다 혼자서 끙끙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했다.

앞에서 말한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과 내가 받은 낮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총론 과목을 다른 학우들에게 꼭 들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우선 행정법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교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

한 것처럼 교수님께서 어려운 법률 용어나 생소한 판례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해주신다.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법학 공부가 무조건 외우기만 하는 과목이 아니라, 법 원리를 이해하고 판례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는 걸 깨달았다.

행정법총론 덕분에 다른 과목도 외우려고 하기 전에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사실 복학하기 전 1학년 때는 고등학교 공부와 대학교 공부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느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모든 과목이 암기해야 할 과목으로만 보였다. 수업 내용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에 흥미가 떨어졌고, 다 외우지도 못한 채로 시험을 봤다. 성적이 나쁜 건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행정법총론을 들으면서 ‘이 과목은 외우려고만 하기엔 내용이 너무 많구나’라고 생각했다. 1학년 때와는 다른 공부 방법을 이용해야 했던 것이다. 일단 온라인으로 교수님의 수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면서 복습했고, 복습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교수님께 이메일로 질문을 드렸다. 복습할 때는 일단 어려운 법률 용어 개념을 정리했다. 시험 직전에는 개념을 최대한 빨리 이해하고 외웠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실제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행정법총론을 공부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그래서 시험 2주 전부터는 다른 과목들에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좋을지 함께 고민했다. 고등학교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시험공부 시간표를 짜보았다. 행정법총론을 비롯해서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집에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도서관이나 카페를 돌아다니며 공부를 했더니 집중이 훨씬 잘 되었다. 공부에 집중하려는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알아보는 것도 시험 공부에 포함된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공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1학년 때는 고등학교 공부와는 다른 대학 공부에 갈피를 잡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행정법총론이라는 큰 산을 만나 공부 방법을 제대로 정하게 되었다. 사실 남들이 보면 특별할 게 없는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에게서는 공부 방법을 찾아낸 것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복습을 철저히 하고, 모르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개념을 외우기 전에 이해부터 하고, 적절한 공부 환경을 찾아내는 것은 대학교 시험 공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공부하게 될 모든 공부에 적용이 될 것 같다. 다른 학우들도 행정법총론을 수강하면서 나처럼 공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하는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총론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이건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행정법총론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나는 중학교 때 신문을 접하면서 시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정작 신문 기사에서 말하는 법 절차와 행정 절차에 대

해서는 모르는 채로 신문을 읽었다. ‘이 사건은 왜 이런 절차를 밟으며 진행될까?’, ‘이 문제는 왜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할까?’, ‘이 법은 왜 제정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자주 했지만, 정작 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주위에 법과 행정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법총론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저절로 풀렸다. 수업 내용이 행정에 관한 법과 절차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다가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대부분은 국가의 행정 및 법 작용에 관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그랬다. 신문 기사들은 거의 다 법원의 재판 결과, 국회의 의정 활동, 국가의 행정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신문 기사를 읽으니까 내가 공부했던 용어나 내용이 전부 신문 기사 속에서 다시 보였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나 국가의 행정이 작용하는 원리를 행정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군대 후임이 변호사 시험 준비하던 모습에 법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무작정 수강 신청했던 행정법총론이, 학기가 끝난 지금은 가장 소중한 강의가 되었다. 행정법총론 덕분에 내 공부 실력이 훨씬 커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커진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법은 이해하는 것’이라는 군대 후임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된다. 나를 성장시킨 과목을 가르쳐주신 Y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법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해준 군대 후임에게 감사하다 (참고로 그 후임은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